

## 農家財務構造와 負債償還能力分析

徐鍾赫

首席研究員, Ph.D. (農業經濟學), 所得開發室

朴成在

研究員, 所得開發室

### I. 머리말

#### II. 農家負債의 現況

#### III. 農家의 財務構造와 負債償還能力

#### IV. 農家의 負債償還能力檢討

#### V. 要約 및 結論

### I. 머리말

農家負債<sup>1</sup>가 最近 몇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여 1985年末 現在 전국 農家戶當 平均負債額은 207만 1천원으로 발표되었다.<sup>2</sup> 이는 1980년말 농가호당 平均負債額 33만 9천원의 약 6.1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또한 1984년말 농가호당 평균부채액 178만 4천에 比하여 16.1% (28만 7천원)가 늘어난 규모이다.

이와같은 急激한 農家負債의 增加는 個別 農家

의 입장에서 負債에 대한 元利金상환의 負擔을 높임으로서 農家收支를 惡化시켜 長期的으로는 農家所得의 持續的인 成長을 저해하는 要因으로作用할 수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또한 農家負債의 增加는 最近의 소값下落과 같은 農家資產價值의 變動時 自己資產(equity capital)에 대한 負債의 比率을 높임으로서 負債償還能力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農家保有資產의 처분내지 離農의 단계로 이끌어갈 위협이 있다. 다른 한편 農家負債의 급격한 증가는 農水畜協과 같은 農業金融機關의 農家에 對한 새로운 資金의 供給을 制限함으로써 (外的資本制限)長期的인 農業發展을 위한 農業部門의 投資擴大를 制約하게 된다.

農家負債가 크게 社會問題화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농가부채의 增加率이 여타 農家經濟指標(예 농가소득, 자산등)의 增加率에 比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부채의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대체로 정부와 社會全體의 認識이 一致하고 있다.

<sup>1</sup> 농가부채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부채”와 “차입금”은 그 개념이 약간 다르다. 차입금은 일정기간동안 외부로부터 벌린 자금의 총액(flow)이며 부채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짚어야 할 차입금의 잔고(stock)를 말한다.

<sup>2</sup> 1985년 전국 농가호당 평균부채액 207만 1천원은 농수산부의 「1985년 농가경제조사결과」의 참경집계치임을 밝힌다.

둘째 農家の 戶當 平均負債規模가 상당한 水準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農家所得만으로는 負債의 상환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문제에 대해서는 政府나 社會全體의 認識이 一致하지 않고 있다.

最近의 農家負債가 심각한지 그 여부에 대한 논란은 學界에서보다는 오히려 言論(신문등)이나 政治 또는 社會團體等에 의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같은 이유는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農家負債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최근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農家負債에 대한 最近에 發表된 研究結果는 매우 制限的이라는 事實이다.

農家負債에 대한 研究는 農協中央會(1984), 기독교농민회(1984), 이우재(1984)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農協中央會(1984)는 農家の 資產, 所得, 消費 및 金融에 關한 時系列資料의 分析을 通하여 農家負債의 累積現象의 原因과 그 심각성을 分析하였다. 즉 농가부채의 累積現狀은 經濟發展過程에서 蒼起되는 농가경제의 商業化 및 機械化 等과 密接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農家負債의 增加分보다는 資產이나 所得의 增加分이 더 크기 때문에 現在로서는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結論짓고 있다.

한편 기독교농민회(1984) 및 이우재(1984)는 農家負債에 對한 事例研究를 通하여 農家負債의 變化, 性格 및 發生原因을 그동안의 農業政策과 關聯하여 構造的인 分析을 시도하고 標準的인 農家를 상정할 때 農家負債의 累增은 지나치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現在 水準의 農家負債는 農家の 獨自의 努力만으로는 解決이 不可能한 것으로 判斷하였다.

以上의 論議를 綜合해보면 農家負債의 增加가

급격하다는데 대해서는 앞에서의 研究結果들이 모두 認定하고 있으나 다만 農家の 負債償還能力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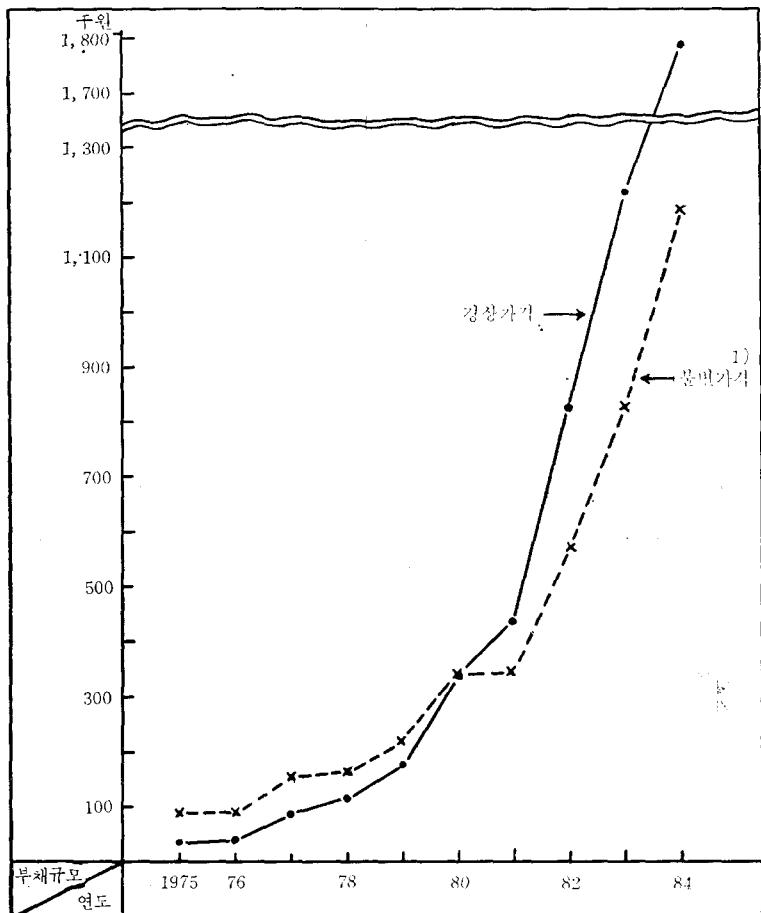
위와 같은 農家負債의 上 환능력 評價에서 서로相反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研究에 利用된 資料와 分析方法의 차이에 연유한다. 즉 앞에서 조사된 그 동안의 조사연구들의 자료는 農家에서의 調查時點이 각기 다르며<sup>3</sup> 또한 分析에 利用된 標本 農家の 數나 構成도 다르기 때문이다. 資料의 分析에 있어서도 앞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研究가 農家財務構造의 變化에 대한 具體的인 分析이 결여된 채 農家經濟의 總括的인 指標變化(예 資產, 負債 및 所得等)에 의한 評價 分析에 置重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研究들이 그 農家の 負債水準이나 영농유형 등에 따른 부채上 환능력의 與否를 判斷하기보다는 平均 農家에서 부채上 환능력 與否에 치중함으로서 現在 農家の 負債償還의 問題가 과연 어느 階層의 어떤 農家에서 얼마나 심각한가를 提示하여 주지 못하였다.

앞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農家負債에 對한 體系化되지 않은 分析方法과 그에 따른 農家の 負債償還能力에 對한 研究結果의 不一致는 現在 農家가 當面하고 있는 負債가 어느정도 인가를 밝히고 이를 위한 政策方向은 어떤 것이어야 할것인가를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本研究는 現在 農家들의 財務構造는 어떠한 狀態이며, 이들의 負債償還能力은 어떠한가를 農家の 財務指標分析을 通하여 규명코자 한다. 分析에는 主로 농가의 虎단자료(충남지역

<sup>3</sup> 농가부채는 년중 어느시기에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는 농가의 지금차입과 상황이 계절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농가는 소득발생이 크지 않은 전반기에는 영농과 생활비 지출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수확이 끝나는 11, 12월 중에 이를 차입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1 農家の 年度末 負債額 추세(1975~84, 전국평균)



註 1) 농가구입가격지수(1980=100)로 디플레이트하여 얻어진 값임.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 각년도

의 1984년도 농가경제조사대상표본농가 241호)  
가 이용되었다.

본논문의 구성은 第2章에서 농가부채의 현황  
을 分析하고 第3章에서는 農家の 負債償還能力  
分析과 關聯한 資產構造와 債還能力에 對해서  
理論的으로 檢討코자 한다. 그리고 第4章에서  
는 실증자료의 分析을 通하여 農家の 負債償還  
能力을 分析코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루어진 실증분석을 바탕  
으로 농가의 負債償還에 대한 綜合評價와 앞으

로의 政策方向에 對해서는 第5章에서 다루고자  
한다.

## II. 農家負債의 現況

農家負債는 1977年부터 눈에 띄이게 증가하기  
始作하였다. 1977年末 農家戶當 平均負債는 8  
만 2천원(경상가격)으로 前年度末 3만 7천원에  
比하여 약 2.2배의 增加를 보였다(그림 1). 이

表 1 農家負債의 增加趨勢(1980年 不變價格)

단위 : 천원, %

연 도	농 가 소 득	농가자산(A)	유통자산(B)	부 채 (C)	C/A	C/B
1970	1,639.7	5,867.3	262.8	101.9	1.7	38.8
1975	2,352.8	12,367.7	420.2	90.0	0.7	21.4
1980	2,693.1	13,383.5	625.3	338.5	2.5	54.1
1984	3,696.9	17,917.4	1,185.2	1,188.5	6.6	100.3
기 간 별	1970~75	7.5	16.1	9.8	△2.5	—
연 평 균	1975~80	2.7	1.6	8.3	30.3	—
증 가율	1980~84	8.2	7.6	17.3	36.9	—

註 : deflator 는 농가구입 가격 차수(1980=100)를 사용하였음.

자료 : 농수산부 「농가경제 조사 결과 보고」 각년도

와 같은 負債의 높은 增加추세는 1985年末 현재 까지 계속되어 1985年末에는 207만 1천원(경상 가격)으로 1976年末 對比 約56배에 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까지 農家負債問題가 相對的으로 크게 問題化되지 않았던 것은 農家の 所得이나 資產(특히 유통자산)規模에 比하여 負債規模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實際로 1981년 말 農家負債는 農家保有 純資產(總資產 - 負債)의 2.6%로서 또 農家の 流通·流動資產의 22.7%로서 그다지 높은 比重을 차지하지 않았다(農水產部, 1985).

農家負債가 社會的으로 크게 問題가 되기 始作한 것은 1981년 이후이다. 1981년 이후 농가 부채는 每年 平均 약 40萬원씩 增加하여 1984年末에는 207만 1천원(농수산부 잠정 추계치)에 달하였다. 실제로 농가 戶當平均負債는 所得水準이 비슷한 都市勤勞者 家口에 比해 48.4%나 높은 水準이다(1984年末基準).<sup>4</sup>

이와같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농가 부채를 農家經濟의 餘他指標와 比較해보면 1970

年代 전반기와 후반기 이후가 너무나 현격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70年代 前半期에는 農가소득이 年平均 7.5% 씩 上昇하고 총자산은 16.1%씩; 그리고 유통자산은 9.8% 높은 增加率을 보인데 반해 부채는 오히려 2.5%씩 감소하였다(表 1), 그러나 70年代 後半期에는 所得과 총자산은 每年 각각 2.7%, 1.6%씩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부채는 每年 30.3%씩 급증하기始作하였다. '80年代 들어와서는 農家所得이나 總資產의 增加率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負債의 增加速度는 그보다 더 높은 36.9% 씩 급격한 증가를 계속하였다.

이와같은 農家負債의 急增은 最近 수년사이에 農가의 財務構造를 크게 惡化시켜 놓았다. 이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資產에 對한 負債比率(C/A)이 1970년에는 1.7%였던 것이 1984年末에는 6.6%로 급격한 增加를 보였으며, 農家の 流通資產에 對한 負債比率(C/B)도 1970년의 38.3%에서 84年末에는 100.3%가 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農家負債의 增加速度는 農家の 餘他指標에 比하여 1981년 이후 훨씬 빠른 속도로 增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총부채규모가 상승하여 農家の 財務構造는 계속 惡化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sup>4</sup> 1984년 말 도지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555천원으로(경제기획원, 1985) 同期의 農가소득 5,549천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84년 말 도지근로자의 호당평균부채는 1,202천원으로서(국민은행, 1984) 同時期에서의 農가부채 1,784천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III. 農家の 財務構造와 負債 償還能力

一定時點에서 農家の 財務狀態를 파악하여 그 農家の 부채상환능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農家經濟의 會計體系에 對한 理解가 必要하다. 農家の 會計體系는 貸借對照表方程式(또는 會計方程式)으로 說明이 可能하다(潘性純, 1983).

農家가 영농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一定量의 資本投下가 필요하며 이때 投下된 資本을 일정시점에서 파악한 stock의 양을 자산이라고 한다. 또한 일정시점에서 파악된 資產은 경영주 스스로의 소유재산과 외부로부터의 借入에 의해 이루어지며 前者를 資本, 後者를 負債라고 한다. 이들 세요소들간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text{자산}(\text{assets}) = \text{부채}(\text{liabilities}) + \text{자본}(\text{proprietorship})$$

으로 표현되며 이를 대차대조표방정식이라고 한다(潘性純, 1983).

農家資產은 크게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유동자산으로 나뉜다(농수산부, 1985). 固定資產(fixed assets)은 그 가치가 一回의 生產期間에 소모되어 생산물로 전환되지 않고 數回에 걸쳐 生產과정에 投入될 수 있는 장기이용이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현행 농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고정자산에는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대동물, 대식물 및 大農機具 등이다.

流動資產(current assets)이란 一定會計年度에 生產되어 처분되든가 처분될 수 있는 農產物이나 1回의 生產과정에 投入되어 그 가치가 생산물로 전환되는 未使用 生产자재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고농산물, 재고생산자재, 小動物 및 小農具가 포함된다.

流通資產(liquidity assets)은 現金과 準現金으로 예금 및 대부금, 未收金, 계 및 보험금, 出資金 및 有價證券 등이다.

負債란 農家가 소유하고 있는 資產에 對한 債權者の請求權을 말하며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부채와 1년이상 10년미만인 중기부채 및 상환기간 1년이내의 단기부채(短期借入金, 未拂金, 假受金)로 區分된다.

마지막으로 資本은 純資產(net assets) 또는 自己資本이라고 하며 농가의 자산에 대한 所有주의 청구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농가의 자산 중 자기자본의 비율이 높으면 그 농가는 財務構造가 건실하다고 평가된다.

企業의 財務狀態를 일정시점에서 파악하여 그企業의 채무이행능력을 판단하는一般的인 지표로는 安定性比率과 流動性比率이 많이 利用되고 있다(한국은행, 1984).

企業의 재무분석에서 安定性比率은企業이 단기적인 채무지급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아니라 長期의으로 경기변동이나 市場與件變化 등企業外의 經濟與件變化에 대응할 수 있는 能力を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分析指標이다.

企業에서의 流動性이라 함은 短期債務에 對한 支給能力을 말하며 流動性分析이라 함은 이러한 지급능력을 测定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의 流動性에 關係되는 各費目間의 關係比率을 分析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은행, 1984).

農業의 경영형태가 기업화된 서구의 농가 재무분석에서 安定性을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표는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 : leverage ratio)이다. 또한 農家の 流動性을 分析하는 지표로는 流動比率(유동자산/유동부채 :

current ratio)과 當座比率(당좌자산／유동부채: quick ratio)이 많이 利用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農家の 負債比率이 100%以下일 때 그 農家는 채무이행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與信者의 입장에서는 50%以下를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유동비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200%以上일 때 단기지급능력이 安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0%~200%는 약간의 위험성이 그리고 100%以下일 경우에는 커다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財務指標들의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農家の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農家の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負債比率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 지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총부채가 農家の 순자산보다 클경우 즉 부채비율이 100%以上일 경우 이농가는 일시에 債務를 이행할 능력은 없으며, 경기변동시 과산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우리나라 農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와 같은 小農經濟는 自己資本, 自家勞動中心의經營形態로서 總農家資產의 64.5%가 土地라는 점이다. 따라서 外國에서와 같이 土地以外의 資產比重이 높고 또한 土地를 담보로 그와같은 資產을 구입하기 위한 外部借入을 하고 있는 農業與件과 우리경우는 分析方法이 달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農業의 商業化가 급진 전됨에 따라 農가에서는 大農機械, 大動物, 農用構築物 등을 구입하기 위한 投資가 크게 들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農가는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였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 農가의

부채 성격은 대부분이 농기계, 대동식물, 농용구축물의 구입이나 아니면 자녀교육비등과 같은投資的 性格이 강한 것들이다. 이처럼 부채를 수반한 투자는 資金償還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게 한다. 즉 이 투자가 실패할 경우 農가의 최후보루인 토지매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곧 토지에 絶對的으로 의존하는 小農經濟의 相對的인 破産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農가재무구조의 안정성 지표로 農가의 土地를 포함한 순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채상환의 위험수준을 100%로 본다<sup>5)</sup>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된다.

以上과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農가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中期性 資產(intermediate assets)의 평가액을 中期性負債(1~10년)로 나눈 중기안전도 지표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text{中期安全度} = (\text{중기성자산} / \text{중기성부채}) \times 100$$

중기성자산 : 농용건물, 대농기구, 대동물  
중기성부채 : 상환기간이 1~10년사이의 부채  
원금

중기안전도에 의한 農가의 부채상환능력은 200%이상인 경우는 재무구조의 안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100~200%는 不安定한 것으로 100%以下의 경우는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区分할 수 있다. 중기안전도가 100~200%의 農가를 不安定한 계층으로 구분한 것은 農家保有中长期性資產의 帳簿價에 의한 평가액은 실제 農가에서 처분

<sup>5</sup> 土地를 담보로 하여 農가의 경영비나 기타 投資費用을借入조달하고 있는 미국의 農가에서 부채비율에 의한 판단기준을 보면 통상 40~70%까지 위험한 農가로 보고 있으며 70%以上농가는 매우 위험한 農가로 분류되고 있다 (USDA, 1985)

할 때 받을 수 있는 價格보다 대부분의 경우 과다계상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農家負債에 대한 단기지급능력을 보는 流動比率은 우리나라농가의 경우 유동자산(재고농산물 등)이 갖는 높은 유동성을 감안할 때(유동자산+유동자산)을(농가의 단기부채+중장기성부채의 당기상환예정 원리금)으로 나눈비율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text{유동비율} = \{( \text{유동} + \text{유동자산} ) / \text{유동부채} \} \times 100$$

유동비율에 의한 농가의 단기지급능력의 구분은 200%이상이면 유동성 양호, 100~200%이면 不安定, 100%이하이면 매우위험수준의 농가로 大別할 수 있다. 이때 유동비율이 100~200%계층의 농가를 不安定 농가로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次期年度의 영농자금이나 家計費로 利用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단기에 갚아야 할 부채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유동성지표중 유동비율의 보조지표로서 當座比率을 생각할 수 있다. 즉

$$\text{당좌비율} = (\text{당좌자산} / \text{유동부채}) \times 100$$

당좌자산=현금, 예저금, 유가증권, 대부금, 미수금 등

농가의 유동자산에는 현금과 준현금이 있으나 준현금에는 契 및 보험금처럼 당장인출하여 단기부채의 지급수단으로 활용할수 없는 것도 있다. 또한 농업금융채권은 農協의 出資金이 대부분이며 이의 引出은 사실상 영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산은 당좌자산에서 除外시키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當座比率에 의한 농가부채의 단기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당좌자산은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농가는 단기의 債務支給을 위하여 유동성이 높은 농가보유 유동자산(재고농산물등)도 쉽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농가의 유동비율에 의한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데 보완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지표에 의한 농가의 부채에 대한 단기지급능력은 100%이상의 경우 安全한 농가로 50~100%의 경우 불안한 농가로 그리고 50%이하의 농가를 위험한 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 IV. 農家の 負債償還能力 檢討

### 1. 資料 및 分析方法

#### 가. 자료

本研究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농수산부의 「1984년도 農가경제조사」 표본 농가중 忠南지역에 위치한 241호 농가의 영농활동과 가계비지출 등에 관한 것들이다. 다만 농가의 장단기부채의 구분과 원리금상환에 관한 자료는 해당농가에 대한 추가조사로 얻어졌다.

농수산부 農가경제조사 보완을 위한 추가조사는 1985.9.25~10.5 사이에 忠南道 各郡 농수산통계출장소의 農가경제 담당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주요조사내용은 1984.1.1~85.6.30사이에 농가에서 이루어졌던 長短期負債의 차입 및 상환과 농가부채 및 금융에 대한 농민반응에 관

한 것이었다.

#### 나. 분석방법

농가부채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농가의 靜態財務指標이다. 농가의 중기안전도(중기성자산/중기성부채), 유동비율  $\{(유동+유동자산)/유동부채\}$  및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이 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中期安全度比率에 의한 농가의 구분은 중기안전도 200%이상은 낸도말 부채상환에 별문제가 없는 농가, 100~200%는 부채상환이 불안한 농가, 그리고 100%이하는 부채상환이 매우 위험한 농가로 평가하였다.

농가부채에 대한 短期支給能力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의해서 評價되었다. 먼저 유동비율에 의한 농가구분은 유동비율 200%이상은 안전한 농가로, 100%~200%는 단기지급능력이 불안한 농가로 그리고 100%이하는 지불불능농가로 하였다. 당좌비율에 의한 구분은 100%이상은 안전한 농가로, 50~100%농가는 지급능력이 불안한 농가로, 그리고 50%이하는 매우 위험한 농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이 가지고 있는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개의 자표를 결합하여 농가의 단기지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코자 하였다. 즉 당좌비율 100%이상으로 유동비율이 200%이상인 농가는 양호한 농가로(A그룹), 유동비율이 200%이상이나 당좌비율이 100%미만인 농가는 불안정한 농가로(B그룹), 그리고 유동비율이 200%이하로서 당좌비율이 100%이하인 농가는 단기지급능력이 위험 내지는 불능형 농가(C그룹)로 구분하였다.

## 2. 分析結果

### 가. 농가 재무구조의 개황

표본농가의 호당평균부채규모('84년 말 기준)는 1,775천원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채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는 전체의 19%, 200만원 미만의 농가는 71%(부채없는 농가포함),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농가는 전체의 9%였다(表 2)。

표본농가의 長短期別 부채규모는 (表 3)과 같다. 표본농가 가운데 1년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부채는 962천원으로서 전체부채의 55%를 占하고 있으며 中期性負債(2~10년) 637천원(35.8%), 그리고 1985년도중에 갚아야 할 流動負債(단기부채+중장기부채원리금)는 호당 1,157천원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85년도중에 농

表 2 負債規模別 農家分布

단위 : 호, %

구 분	충남표본농가	전 국
없는 농가	45 (18.7)	418 (22.1)
50만원 미만	39 (16.2)	286 (15.1)
50~100	34 (14.1)	243 (12.8)
100~200	54 (22.4)	375 (19.8)
200~300	27 (11.2)	198 (10.5)
300~400	14 (5.8)	140 (7.4)
400~500	6 (2.5)	90 (4.8)
500만원 이상	22 (9.1)	145 (7.7)
계	241 (100.0)	1,895* (100.0)

\* 1984년도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중에서 연중 표본변경이 되지 않은 농가만임.

表 3 標本農家의 平均負債規模(1984年末)

단위 : 천원

구 분	평 균 (A)	표준편차(B)	변이계수 (B/A·100)
총 부 채	1,775(100.0)	2,412	1,359
장 기 부 채	177 (10.0)	1,074	6,077
중기 "	637 (35.8)	1,700	2,669
단기 "	962 (54.5)	1,462	1,509
유동* "	1,157 (65.0)	1,666	1,445

\* 유동부채는 1년이내에 지급해야 할 단기부채와 중장기부채의 상환예정원금을 더한 것임.

表 4 標本農家の 年中 純負債 増減別分布

구 분	충남표본농가	전 국
100만원 이상감소	12호(5.0%)	209호(11.0%)
100~50만원 감소	14 (5.8)	152 (8.0)
50~0 만원 감소	40 (16.6)	394 (20.8)
0~50 만원 증가	96 (39.8)	621 (32.8)
50~100만원 증가	30 (12.4)	188 (9.9)
100~200만원 증가	23 (9.5)	188 (9.9)
200만원이상 증가	16 (6.6)	143 (7.5)
계	241(100.0)	1,895 (100.0)

表 5 標本農家の 財務構造指標

단위 : 천원, %

자 산(B)	부 채 (A)	재 무 지 표
(1) 총자산 29,488	(6) 총부채 1,775	차입금의존도(6)/(1)) 6.0
(2) 순자산 27,713		부채비율((6)/(2)) 6.4
(3) 중기자산 2,645	(7) 중기부채 637	중기안전도((3)/(7)) 415.2
(4) 유동·유통자산 3,540	(8) 유동부채 1,155	유동비율((5)/(8)) 306.5
(5) 당좌자산 474		당좌비율((5)/(8)) 41.0

가는 적어도 116만원 이상을 농업생산활동에서의 경상잉여(가치분소득-가계비지출)로 남길 수 있어야만 농가의 재산대각이나 신규차입이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금액은 1984년도 표본농가의 평균소득의 19.5%수준에 달하고 있다.

한편 차입처별 부채의 구성비를 보면 전국평균치와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농협 등의 제도금융이 전체의 61%로서 전국평균치 69%보다 8%정도가 적었다.

1984년도중 표본농가의 부채증감을 보면 연도 초보다 낸도말에 부채가 감소한 농가가 28%였으나 그중에 100만원以上 크게 감소한 농가는 5%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전체농가의 72%가 1984년도中에 부채규모가 증가하였으며 100만원 以上 크게 증가한 농가는 전체의 16%로서 전반적인 부채증가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표본농가의 재무구조는 평균적으로 볼때 안정

성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이나 단기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表 5)。

以上の 농가재무구조개황은 충남지역의 표본농가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농수산부의 전국표본농가의 평균치와 비슷한 경향치를 보이고 있어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 사례연구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農家の 負債償還能力 檢討

##### 1) 총부채에 대한 상환능력

농가의 중기안전도의 분포는 안정적인 농가(200% 以上)가 전체의 84.7%로서 큰 비중을 占하고 있으며 100~200%사이의 불안한 농가는 10.4%, 100%미만의 위험수준농가가 9.5%로 나타났다. 즉 농가재무구조의 중기안전도는 예상보다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중기성부채가 大動物大農具등의 구입에 의한 것으로 특히 소농이 계층에서 과다한 차입에 의한 투자는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2) 단기지급능력

농가의 부채에 대한 단기지급능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농가중 유동·유통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충분히 총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200% 以上 유동성보유)는 68.5%로서 전체농가의 약 1/3에 가까운 31.5%의 농가가 당면한 부채상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단기지급능력에 문제가 있는 농가중 유동비율 100~200%의 불안한 농가는 전체의 16.1%, 100%미만의 매우 위험한 농가는 15.3%였으며, 이 가운데 지급능력이 50%미만의 단기지급불능상태의 농가는 전체의 6.6%를 占하고 있다.

表 6 農家財務構造의 中期安定性別 分布

단위 : 호, %

구 분	양 정 성 호	불안정	위험 I	위험 II	계
농가호수	193	25	11	12	241
구 성 비	80.1	10.4	4.6	5.0	(100.0)

양호 : 200% 이상 ; 불안정 : 100~200% ; 위험 I : 50~100% ; 위험 II : 50% 미만.

자료 : 1984년도 농수산부, 「농가경제조사」 충남 표본농가

表 7 農家の 流動比率別 農家分布

단위 : 호, %

	양 호	불안정	지급불능 I	지급불능 II	계
농가호수	165	39	21	16	241
구 성 비	68.5	15.2	8.7	6.6	100.0

양호 : 유동비율 200% 이상, 불안정 : 100~200%, 지급불능 I : 50~100%, 지급불능 II : 50% 미만

한편 당좌비율에 의한 농가의 단기유동성을 보면 대부분의 농가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좌자산만으로 流動負債를 상환할 수 있는 당좌비율 100% 이상의 농가는 표본농가의 43.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100% 미만의 단기지급불능형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46.1%의 농가는 당좌비율이 50%에도 못미치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表 8)。

이처럼 농가의 당좌자산 보유수준이 극히 낮은 것은 오늘의 負債問題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많은 농가들이 現金保有水準이 낮아 상대적인 자금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당좌

表 8 流動比率別·當座比率別 農家分布

단위 : 호, %

유동비율	당좌비율	100% 이상	50~100%	50%미만	계
	200% 이상	104(43.2) A	17 (7.1) B	44(18.3)	165 (68.5)
100~200%	1 (0.4)		8 (3.3) C	3.0(12.4)	39 (16.2)
		0	0	21 (8.7)	21 (8.7)
50~100%		0	0	16 (6.6)	16 (6.6)
	계	105(43.6)	25(10.4)	111(46.1)	241(100.0)

비율은 短期流動性을 보는 補助指標에 지나지 않는다. 농가의 자산중에는 판매과정을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流動性이 양호한 在庫農產物이 短期支給手段으로 크게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한 流動比率로 보면 농가의 短期支給能力은 현저히 상승기 때문이다. 그러나 農家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流動資產을 短期支給手段으로 볼 수는 없다. 농가보유 년도별 유동자산의 상당부분은 端境期 까지의 식량과 농업경영비 및 가계자출을 위한 支出豫定資產性格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家の 短期支給能力의 測定은 이 두 지표를 結合시켜봄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농가구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음 (表 8)은 이 두 要素를 종합적으로 본 것이다.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모두 양호한 농가를 A그룹, 유동비율은 양호하지만 당좌비율이 문제가 있는 농가를 B그룹, 유동·당좌비율이 모

表 9 短期支給能力別 農家の 負債規模

단위 : 천원, %

구 分	양 호 (A)	불안정 (B)	위험 (C)	A/C	B/C
총 부 채	831 (100.0)	1,333 (100.0)	3,456 (100.0)	24.0	38.6
장 기 부 채 (10년이채)	149 (17.9)	213 (16.0)	167 (4.8)	89.2	127.5
중 기 부 채 (1~10년)	506 (60.9)	409 (30.7)	1,006 (29.1)	50.3	40.7
단 기 부 채 (1년 미만)	176 (21.2)	711 (53.3)	2,283 (66.1)	7.7	31.1
유 동 부 채	258 (31.0 <sup>1)</sup> )	841 (63.1)	2,660 (77.0)	9.7	31.6
농 가 비 율	43.6	25.3	31.1		

1) ( )안 숫자는 총부채에 대한 비율임.

表 10 농가의 단기지급능력별 부채옹도 및 차입처분포  
단위: 천원, %

구 分		양호(A)	불안정(B)	위험(C)
용 도 별	생 산 적 부 채	690 (83.0)	824 (61.8)	2,029 (58.7)
	소 비 성 부 채	130 (15.6)	435 (32.6)	1,018 (29.5)
	차 입 금 상 환	11 (1.3)	74 (5.6)	409 (11.8)
계		831 (100.0)	1,333 (100.0)	3,456 (100.0)
차 입 처 별	제 도 금 응	680 (81.8)	746 (56.0)	1,933 (55.9)
	사 채	151 (18.2)	586 (44.0)	1,522 (44.1)
	계	831 (100.0)	1,333 (100.0)	3,456 (100.0)
연간이자지불액 (84년)		82	103	221

두문제가 있는 농가를 C그룹으로 나누면 각 그룹에 속하는 농가는 아래와 같다. 즉 A그룹은 43.6%, B그룹은 25.3%, 그리고 지급불능형의 위험한 농가인 C그룹은 31%로 대별되고 있다. 여기서 C그룹의 농가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입금의 反濟를 위하여 새로운 차입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농가일 수록 사채의존도가 높아서 부채누증 급격히 일어날수 있다는 점이다.

以上에서 현재농가부채의 문제는 土地를 포함한 농가의 全固定資產의 처분까지를 고려할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은 단기지급능력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負債의 상환압박과 단기지급능력부족에 따른 부채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상환능력별 농가의 성격분석은 단기 지급능력을 中心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다만 농가경제의 중기안전도가 위험수준에 와있는 농가도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불안정한 그룹까지 합치면 19.9%)점도 밝혀둔다.

단기지급능력별 농가부채의 정도나 성격은 뚜

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의 규모면에서 지급능력이 양호한 농가(A그룹)는 호당 년도말총부채가 831천원이었으며, 유동비율은 양호하나 당좌비율에서 문제가 있는 불안한 그룹(B그룹)은 호당 1,333천원으로서 전자보다 160%가 많다. 그런가 하면 단기지급능력위험 또는 지급불능형농가는 이들보다 훨씬 큰 3,456천원으로 나타났다(表 9)。

부채의 구조를 보면 C그룹농가는 단기채의 비중이 높아 차입구조가 매우 劣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A그룹농가는 중장기채의 비중이 78.8%인데 비하여 B그룹은 46.7%, C그룹은 33.9%로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단기지급능력이 매우 위험한 농가(C그룹)는 총부채규모도 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채는 상환기간이 짧고, 利子率이 높은 단기부채로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클것으로 판단된다(表 10)。

〈表 11〉은 '85년도종 농가가 상환해야 할 부채(유동부채)를 어떠한 財源으로 얼마만큼 충당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이다. 債還財源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농가의 경상잉여, 당좌자산 그리고 유통자산등이다. 만일以上の 것들로 상환이 곤란하면 新規借入이나, 고정자산의 매각, 既借入金에 대한 연체등을 생각할 수 있다. 〈表 11〉은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각각의

表 11 短期支給能力別 農家の 債還財源에 대한 流動負債의 比率(유동부채/상환재원)(1984年末)  
단위: %

구 分	양 호	불 안 정	위 협
상 환 재 원 I	15.0	52.0	240.1
상 환 재 원 II	10.4	45.8	189.5
상 환 재 원 III	5.6	18.2	91.8
상 환 재 원 IV	4.1	13.9	61.7

상환재원 I : 농가경제 잉여(84년)

" II : 농가경제 잉여 + 당좌자산

" III : 농가경제 잉여 + 당좌자산 + 유동자산

" IV : 농가경제 잉여 + 당좌자산 + 유동자산 + 대동물

상환재원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유동부채／상환재원)을 측정한 결과이다.

먼저 지급능력이 매우 불량한 C 그룹 농가의 경우 '85년도중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는 경상잉여의 240%로서 이것만으로는 상환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불안한 그룹인 B 그룹은 52%, 양호한 그룹은 15%로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그룹의 경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당좌자산과 유동자산을 처분할 경우(상환자원Ⅲ) 그 비율은 92%로서 겨우 유동부채와 상환재원간에 균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가운데 대동물까지를 債還財源으로 고려할 때 그 비율은 약 62%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동자산의 대부분이 재고농산물로서 次期의 영농비 및 家計費의 調達源임을 감안할 때 이들 C 그룹 농가들은 대동물을 처분하여서라도(유동자산은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농가가 85년도중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의 상환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들 농가는 대동물 이외의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새로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短期支給ability이 매우 취약한 C 그룹에 속하는 농가의 농가유형은 어떠한가를 알아보자.<sup>6</sup> 分析結果에 의하면 경영규모면에서 영세소농층 (<1.0ha)과 대농층 (2.0ha 이상)이 中農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C 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전체농업조수입중 축산수입비율이 50%以上)와 원예농가에서 각각 그룹내 농가의 40%와 36%를 C

그룹농가가 점하므로 식량작물형농가나 혼합형농가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관계로 보면 小自作農家(임차면적)과 (작면적)가 자소작이나 자작농가에 비하여 단기지급능력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 V. 要約 및 結論

最近 급격한 累增現象을 보이고 있는 農家負債는 個別農家의 입장에서 負債에 대한 元利金 상환의 負擔을 높임으로서 農家收支를 惡化시켜 長期의으로는 農家所得의 持續的인 成長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作用할 수 있다는데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農家負債의 增加는 最近의 소값 下落과 같은 農產物價格 또는 農家資產價值의 變動으로 自己資產(equity capital)에 對한 負債의 比率을 높임으로서 負債償還能力을 떨어뜨려 결국 農家保有資產의 처분내지 농가의 영농포기 단계로 이끌어갈 위협이 있다. 다른 한편 농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農水畜協과 같은 農業金融機關의 農家에 對한 새로운 資金의 供給을 制限함으로서 (外的 資本制限) 長期의 農業發展을 爲한 農業部門의 投資擴大를 制約하게 된다.

農家負債가 크게 社會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첫째 농가부채의 증가율이 餘他 農家經濟指標(농가소득, 자산 등)의 증가율에 比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둘째 농가의 호당 평균부채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농가소득단으로는 부채의 상환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지않나 하는 점이다.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政府 또는 社會全體의 인식이 一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두번째의 부채상환

<sup>6</sup> 농가유형에 따른 단기지급능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徐鍾赫, 朴成在, 「農家資產 및 借入構造의 變化에 關한 研究—農家負債의 증가요인과 상환능력 검토를 中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의 제 4장 2절을 참조.

능력에 대해서는一致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농가의 負債償還能力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가를 규명코자 하였다.

本論文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충남지역의 「농가경제조사」대상 표본농가(농수산부 표본농가) 241호의 1984년도 중 영농활동에 관한 횟단자료가 이용되었다. 本論文의 분석에 사용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판단지표로는 농가의 중기안전도(중기성자산/중기성부채×100), 유동비율{(유동+유동자산)/유동부채} 및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이 사용되었다.

農家資料의 分析을 통하여 얻어진 주요한結果를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기안전도가 양호한 농가(200%이상)는 전체의 84.7%로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기안전도 100~200%의 불안한 농가가 전체의 10.4% 그리고 위험한 농가(100%이하)는 9.5%를 보였다. 즉 전체농가중 부채상환을 위하여 농가보유중기자산을 전부 처분야해 중기성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농가의 비율은 9.5%로 나타났다.

둘째, 농가의 부채에 대한 단기지급능력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표본농가의 약 1/3에 가까운 31.1%농가가 당면한 부채상환(유동부채)이 어려운 당기부채상환불능형 위험농가로 分析되었다.

세째, 위에서 구분된 단기지급능력이 극히不良한 농가(C그룹)의 재무구조를 보면 1984년도 말 평균부채액은 3,456천원으로써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한 농가(전체의 43.6%)의 831천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85년도중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2,660천원으로서 '84년 농가소득의 44.7%를 점하고 있다.

네째, 또한 단기지급능력이 극히불량한 농가는 그렇지 않은 그룹의 농가들에 비하여 단기성자금을 많이 쓰고 있으며(전체의 66.1%로서 양호한 농가의 21.2%와 대조됨), 부채의 용도면에서도 소비성내지는 차입금상환을 위한 부채가 양호한 농가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부채의 차입처별로는 사채의 비율이 44.1%로서 양호한 농가의 18.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농형태를 보면 축산및 원예농가가 타농가에 등에 비하여 단기지급능력의 위험율이 높은 농가가 많았으며, 영세소농층(~1.0ha)과 大農층에서, 그리고 소작농가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以上の 분석결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정책적 함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현재 농가부채는 전농가층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농가에 대한 부채탕감과같은 방법을 통한 농가부채 문제의 해결방법은 사회적인 형평상 정책으로 채택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현재의 농가부채 문제는 농가의 長期的인 經營收支의 악화, 새로운 農業投資의 실패, 지나친 消費性向 등과 같은 요인들이 적·간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農產物價格에 대한 지원정책, 농가의 합리적인 資金管理能力의 제고, 지나친 소비풍조의 억제를 위한指導 등 일반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농가들이 당면한 부채문제는 상당한 농가들이 短期償還能力이 매우 낮으며 그들 농가들의 대부분은 높은 利子率의 私債 등 단기성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農業資金에 대한 金利引下와 함께 中長期性 資金의 확대 공급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榮喆, “農家의 借入金償還에 대한 理論的 考察”,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1978. 12.
- \_\_\_\_\_, “農業金融構造의 變遷”, 「韓國農業의 近代化  
 過程」,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0.
- 潘性紈, 「農業經營學」, 韓國放送通信大學, 1983.
- 徐鍾赫, 朴成在, 「農家資產 및 借入構造의 變化에 關  
 한 研究—農家負債의 增加要因과 債還能力檢討  
 를 中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12.
- 尹皓燮外, 「農業金融政策과 農業金融構造改善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이우재, “농가부채의 실태와 그 문제점”, 「한국농업문  
 제의 새로운 인식」, 둘째개, 1984.
- 農協中央會, 「韓國의 農業金融」, 1984
- 한국기독교농민회, “농가 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  
 소방안”, 「農村現實과 農民運動」, 民衆社 1984,  
 pp. 105~134.
- 韓國銀行, 「기업경영분석」, 1984.
- U.S.D.A, *The Current Financial Condition of  
 Farmers and Farm Lenders*, 1985.